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The Study on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중종 10년(1515)경의 |
| 2.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 일본 |
| 『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 蓬左文庫 소장의 명종 |
| 3.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 20년(1563) 번각본과의 비교 |
| 『香山三體法』의 서지적 특징 | 6. 결 론 |
| 4.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 <참고문헌> |
| 『香山三體法』의 구성 및 내용 | |

<초 록>

이 글은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서지적 특징, 구성 및 내용,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 일본 蓬左文庫 소장의 명종 20년(1563) 번각본과의 비교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香山三體法』은 국내외에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으로는 유일한 책이다. 일본 蓬左文庫 소장본에는 세종 27년(1445)에 쓴 안평대군의 발문과 명종 20년(1565)에 쓴 김덕룡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기존의 학자들이 金德龍의 발문에 더 비중을 두어 책의 최초 간행을 명종 20년(1565)으로 보는 학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었다.

이 자료는 또한 기존에 주장해왔던 중종 10년(1515)의 갑인자 보주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래 사용해서 획이 아주 가늘고 모양이 휘어 있으며, 중심이 기울어 진 것들이 있다.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보자는 활자의 굵기와 크기가 일정하고 매우 정연하다. 기필되는 부분과 빠짐 등이 매우 부드럽고 정연한 것을 볼 수 있다. 목활자 보자들은 활자의 굵기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동일한 활자라 하더라도 같은 글자 모양이 없고 세김이 매우 거칠어서 확대하여 보면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명종 20년(1563)의 번각본에는 이 목활자 보자와 같은 형태의 글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중종 10년(1515)경의 번각임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는 2010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서지학회 춘계학술발표회(2010.4.2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0년 5월 11일 최초심사일: 2010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16일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번각본과 비교해 본 결과 원본과 똑같이 간행된 경우가 아닌 것이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획을 쓰는 습관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뜻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 특히 뜻이 다른 글자가 사용된 경우는 내용을 교감하여 일부 글자는 정정하여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분야, 활자관련분야, 한문학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 『香山三體法』,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ABSTRACT>

This paper will conduct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of *Hyangsansamchebeop* by reviewing in the order of it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its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its composition and content, and a comparison of the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printed around the 1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1515) with the reprint copy in Japan's Hosa Archives(蓬左文庫) which was made in the 20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1563).

Hyangsansamchebeop is the only First Cast Gapinja-Type edition available in or outside the country. The copy owned by Hosa Archives in Japan has an epilogue written by Anpyeongdaegun Yi Yong(李瑬) in the 27th year of King Sejong(1445) as well as an epilogue by Kim Deok-Yong(金德龍) written in the 20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1565). In this research, the previous theory that this book had been printed in 1565, based on the emphasis on the epilogue by Kim Deok-Yong, was corrected, and the possibilities for further research could open.

This book supports the existing theory that some of Gapinja-Type were supplementarily cast in the 1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1515). In this book, used were the First Cast Gapinja-Types created around the 27th year of King Sejong's reign(1445). Due to long use, the strokes of many characters are slender and arched, and some are slanted in the middle. In contrast, the supplementary types of the book have a consistent thickness and size. The beginning of the letters and their strokes are smooth and orderly. Wooden supplementary types tend to have inconsistent thickness and size. Even the same letters have different shapes, and with rough carvings, incisions look clear when magnified. Since the reprint copy made in the 20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1563) exhibits the same letters as the wooden supplement types, it is certainly the reprint of the one made in the 1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1515).

A comparison with the reprint copy of Hosa Archives in Japan shows that it was not published at the same time as the original. A few characteristic differences can be spotted, such as how the strokes are made and how different letters are used for similar meanings in some cases. In particular, some of the letters with different meanings were proofread, corrected, and then repri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most fundamental research in bibliography, typology-related fields, and Korean classics.

Key words: the First Cast Gapinja-Type, *Hyangsansamchebeop*, *Hyangsansamchebeop*

1. 서론

『香山三體法』은 安平大君(1418-1453) 李瑬이 백거이의 시 오언율시·칠언율시·칠언절구 가운데 185수를 뽑아 세종 27년(1445)경에 편찬하여 간행한 단권본이다. 안평대군이 백거이의 시를 왜 선집하였는지는 『香山三體法』 뒤에 붙인 그의 발문에 잘 나타난다. 발문에 의하면¹⁾, “백거이의 시는 자못 소회를 푸는 맛이 있어 達道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한다. 옛 사람 중에 그 시를 편집한 이가 혹은 養恬²⁾이라 하고 혹은 助道라 했다. [일부 중략] 이 책을 출판하여 이름을 『香山三體法』이라 하고 달도한 자들과 더불어 읽으려 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초주갑인자본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았고, 후대의 번각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과 이설들이 무성하였다. 이번 에 발굴된 『香山三體法』은 초주갑인자 원본은 아니지만 중종 10년(151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으로 국내외의 유일본이다. 이 책으로 인해 기존의 이설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으며, 초주갑인자, 초주갑인자 보주 활자, 목활자 보자 등의 서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 蓬左文庫(104. 1.23)에 소장된 명종 20년(1563)본이 이를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번각본이어서 양자 간의 판각 및 내용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의 서지적 특징,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의 구성 및 내용,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 일본 蓬左文庫 소장의 명종 20년(1563) 번각본과의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지학본

1) 白居易 著, 李瑬 編, 『香山三體法』 世宗 27年(1445) 跋文. 白樂天之詩 頗有遺懷之作 故達道之人率多愛之 古人選錄其詩者 或名曰養恬 或名曰助道 …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香山三體法 庶幾與達道者共之云 乙丑六月匪懈堂書.

2) 莊子 外篇 第16 繕性 “古之治道者 以恬養知 知生而無以知爲也 謂之以知養恬 옛날의 도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욕심을 끊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지혜를 길렀다. 나면 서부터 지혜로써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를 두고서 지혜로써 욕심이 없이 깨끗하고 담담함을 기르는 것이라 말한다.”

야, 활자관련분야, 한문학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의 편찬과 간행

『香山三體法』의 저자는 白居易(772-846)이고 편자와 간행자는 安平大君(1418-1453) 李瑢이다. 저자인 백거이³⁾가 지은 작품 수는 대략 3,840편이라고 하며 古體詩, 今體詩, 樂府, 歌行, 賦 등의 시가 및 誌銘, 祭文, 贊, 記 등의 산문작품에 이르는 모든 문학형식을 망라했다. 백거이는 문학으로 정치이념을 표현하고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을 문학 활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憲宗 10년(815) 강주사마로의 좌천과 목종의 죽음은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 문학으로부터 탈피하여 인생의 문학을 추구하게 되었다. 敬宗 卽位年(824) 목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元稹에 의해 『白氏長慶集』 50권이 편찬되었다. 당시 백거이의 나이는 53세였으며 ‘長慶’은 목종의 죽음과 동시에 새로이 바뀐 연호였다. 따라서 『백씨장경집』은 죽은 천자의 후한 대접을 그리워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文宗 9년(835)에 백거이가 그의 문집을 廬山 東林寺에 보낸 것은 60卷本, 文宗 10년(836)에 東都 勝善寺에 보낸 것은 65권本, 文宗 13년(839) 蘇州 禪林寺로 보낸 것은 67권本이었다. 그때그때 모은 문집의 분량이 달랐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각각의 권수가 다르다. 여하튼 그의 문집은 원진에 의해 편찬된 50권 이외에 後集 20권이 정리되었고, 이어서 武宗 5년(845) 5권의 續後集이 편찬됨으로써 합계 75권의 大集이 완성되었다. 이후 그는 宣宗

3) 백거이는 河南省 新鄭縣 출신으로 字는 樂天, 號는 香山居士 또는 醉吟先生이라고도 하였다. 시호는 文이며 중국 中唐時代(766-826)의 시인이다. 德宗 16년(800) 29세 때 최연소로 진사에 급제하였고, 이어 書判拔萃科, 才識兼茂明於體用科에 연속 합격하여 翰林學士, 左拾遺 등의 관직에 발탁되었다. 憲宗 10년(815) 재상 武元衡의 암살사건에 관하여 직언을 하다가 조정의 분노를 사 江州司馬로 좌천되었다. 穆宗 卽位年(820)에 郎中이 되어 중앙으로 복직했고, 穆宗 2년(822) 이후 杭州刺史, 蘇州刺史를 거쳐 武宗 2년(842) 刑部尙書를 끝으로 관직에서 은퇴했다.

即位年(846) 8월, 75세의 나이로 洛陽 履道里에서 생애를 마감했다.⁴⁾ 白居易는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시를 편집하였다.⁵⁾ 그 중에서 2차 편집이 이루어졌던 敬宗 即位年(824)까지만 諷諭詩・閒寂詩・感傷詩・雜律詩의 4분류법을 적용했고, 이후로는 格詩와 律詩의 2분류법을 적용했다. 백거이는 모두 75권의 시문집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현재 71권이 남아 있다.⁶⁾

안평대군 이용⁷⁾은 백거이 시 3,000餘首 중에서 150題 185首를 뽑아 선집하여 「香山三體法」이라 하였는데 香山은 백거이의 호이며, 三體는 五言四律, 七言四律, 七言絶句를 말한다. 이 시 중 제1首부터 제72首(제1題-제41題)까지는 五言律詩, 제73首부터 제134首(제42題-제103題)까지는 七言律詩, 제135首부터 제185首(제104題-제146題)까지는 七言絶句로 되어 있다.⁸⁾

「香山三體法」 말미에 世宗 27년(1445)에 안평대군이 붙인 발문⁹⁾이 있는데, 이 내용을 참조하면, 안평대군이 백낙천의 시집 원본을 구했지만 너무 방대하고 번다하므로 찾아 읽기가 어려웠다. 그의 시 중에서 선집하여 三體로 분류하여 간행하면서 이름을 「香山三體法」이라 한다고 하였다.

안평대군이 발문을 쓰고 간행한 초주갑인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동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9b0650a>> [cited 2010. 4. 20];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서울: 문이재, 2002), 97-106.

5)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8.

6)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고서해제」 11(서울: 평민사, 2008), 427-434.

7) <[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 [cited 2010. 4. 20]. 조선 초기 왕족 서예가. 자는 淸之, 호는 匪懈堂, 琅玕居士, 梅竹軒. 이름은 瑒. 세종의 셋째 아들. 세종 10년(1428) 안평대군에 봉해졌고, 문종 때 조정의 배후실력자로 등장하여, 둘째 형 수양대군의 세력과 맞서 있었다. 1453년 癸酉靖難으로 황보인 김종서 등이 살해된 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교동에서 賜死되었다. 詩文, 그림, 가야금 등에 능하고 특히 글씨에 뛰어나 당대의 명필로 꼽혔다.

8) 심우준, 「〈香山三體法〉研究」(서울: 一志社, 1997), 18.

9) 白居易 著, 李瑒 編, 「香山三體法」, 世宗 27年(1445) 跋文. 白樂天之詩 … 余幸得元本浩穰繁亂 難於搜閱 今以三體類而出之 名曰香山三體法 … 乙丑六月匪懈堂書.

일본 蓬左文庫 소장본에는 명종 20년(1565)에 김덕룡이 간행하면서 쓴 발문이 실려 있는데, 金德龍이 『香山三體法』 한 편을 구하여 집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西關 절도사로 부임하여 通判 趙好問과 상의하고 간행하여 널리 보급한다는 내용이다.¹⁰⁾ 이에 대해 일본 학자는 金德龍의 刊記 중 “家藏久矣”의 句를 합해 생각해서 간행 연대를 명종 20년(1565)까지로 내려잡고 있으며¹¹⁾, 심우준 교수는 일본 학자의 설을 비판하고 세종 27년(1445)에 稿本이 확정되었고 명종 20년(1565)에는 단순히 간행작업만 수행했다고 보았다.¹²⁾ 천혜봉 교수는 일본 蓬左文庫에 소장된 한국 전적을 조사하면서 김덕룡의 번각본이 初鑄甲寅字로 印出했던 책을 翻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³⁾ 황위주 교수는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 구체적 규모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¹⁴⁾고 하였다. 허경진 교수는 세종 27년(1445)에 붙인 발문에 나오는 “出之”는 “내어놓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를 “출판한다”는 뜻으로 보았다. 안평대군이 분명히 “출판한다”고 기록했는데도 120년 뒤에야 처음 출판한 것처럼 알려진 이유는 일본 蓬左文庫 소장본에 명종 20년(1565)에 김덕룡이 간행하면서 쓴 발문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⁵⁾

여러 가지 추론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천혜봉 교수가 명종 20년(1565)의 번각본으로 본 것인데 이는 원본이 초주갑인자본에 근거한 것이므로 초주갑인자본이 발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허경진 교수도 발문 중의 “出之”를 간행의 뜻으로 보아 원본이 간행본이라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향산삼체법』은 중종 10년(151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이며, 蓬左文庫(104. 1.23)에 소장된 명종 20년(1563)본이 중종 10년(1515)경 간행본의 번각본이다. 이에 대한 서지적인 특징의 비교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0) 白居易 著, 李珣 編, 『香山三體法』 明宗 20年(1565) 跋文. 右香山三體法一編 得以家藏久矣 今茲來鎮西關也 謀諸趙通判好問鋟梓廣傳 … 峇嘉靖乙丑秋 節度使金德龍書于香雪軒.

11) 花房英樹, 『白氏文集の批判的研究』, 190-191.

12) 심우준, 「〈香山三體法〉 연구」 (서울: 一志社, 1997), 22-23.

13)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312.

14) 황위주, “韓國本中國試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3집(2003),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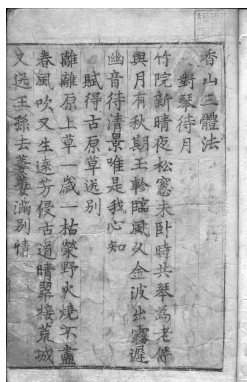
15) 허경진,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2008), 103.

3.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의 서지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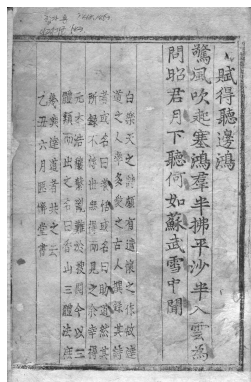
「향산삼체법」의 서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중종 10년(151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이다.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22.0×16.2cm, 有界, 9行15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7.5×18.5cm이며 총 42장 중 38장 전·후면이 결장이다. 표제는 “白律精選”이고(그림 1 참조), 책의 권수제는 “香山三體法”이며(그림 2 참조), 끝부분에는 안평대군 이용의 발문이 붙어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1>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의 표지 부분



<그림 2>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의 권수 부분



<그림 3>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의 권말 부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에는 세 종류의 활자가 섞여 있다.

첫째, 글자획이 많아 가늘어지고, 심한 것은 글자획이 일그러진 것이 있는데 이는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들이다. 이들 활자 중 심하게 마멸되고 일그러진 10종을 선정하여 보면, 1장 후면 5행의 ‘上’, 4장 전면 6행의 ‘時’, 5장 후면 2행의 ‘人’, 5장 후면 5행의 ‘下’, 6장 전면 6행의 ‘長’, 7장 전면 4행의 ‘士’, 9장 후면 2행의 ‘何’, 17장 전면 3행의 ‘故’, 17장 전면 7행의 ‘夫’, 22장 전면 3행의 ‘得’ 등이다.

둘째, 원래의 활자가 반세기 정도 지나서 많이 닳고 이지러져 사용되지 못할 때 활자를 큰 규모로 주조하여 補鑄한 경우이다. 『향산삼체법』의 판식이 사주쌍변에 상하내향의 굵은 화문어미이고 원래의 활자가 심하게 닳은 것을 보면, 중종 10년(1515)경에 인출된 갑인자 보주활자이다.¹⁶⁾ 새로 조성된 보주활자들은 글자획이 좀더 굵고 정교하다. 천해봉 교수는 이 보주활자에 대해서 중종조 후기 무렵부터 명종연간 그리고 선조 초기에 찍힌 인본에서 다른 원활자가 마멸되고 이지러져 補字가 적지 않게 혼입되어 이들은 ‘甲寅字混入補字本’ 또는 ‘甲寅字多混補字本’으로 판종을 칭해야 한다고 보았는데,¹⁷⁾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활자가 정교하고 해정하게 주성된 것은 모두 보주활자이며 인쇄본 전체에 대부분이 활자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10종만 선정하여 보면, 4장 후면 5행의 ‘天’, 5장 전면 5행의 ‘不’, 5장 후면 8행의 ‘思’, 7장 전면 3행의 ‘竹’, 8장 후면 7행의 ‘夢’, 11장 후면 8행의 ‘巳’, 15장 전면 1행의 ‘上’, 17장 전면 2행의 ‘以’, 21장 후면 6행의 ‘香’, 23장 전면 2행의 ‘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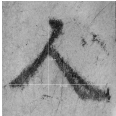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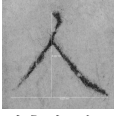
셋째, 일부의 목활자 補字가 섞여 있는데 새로 補鑄한 활자 이외에 초주 활자가 심하게 닳아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는 목활자 보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들 보자 10종을 선정해 보면, 2장 전면 4행의 ‘人’, 2장 전면 7행의 ‘界’, 6장 전면 6행의 ‘改’, 6장 후면 9행의 ‘陰’, 8장 전면 9행의 ‘秋’, 8장 후면 9행의 ‘寒’, 13장 후면 3행의 ‘高’, 20장 전면 8행의 ‘敲’, 24장 전면 5행의 ‘湖’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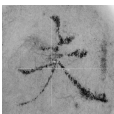
16) 中宗實錄 卷23, 10年 乙亥 11月 乙酉(3日)條의 ‘昨敎別設印書都監’ 및 同月 丙戌(4日)條의 ‘開刊節目及都監名號 并磨鍊 自治通鑑唐本 字樣細大適中 以此改鑄銅字 且甲辰·甲寅等字訛刊者 悉令改鑄’ 참조.

17) 千惠鳳, “甲寅字本 鑑識의 諸問題,” 『蒼史李春熙教授定年紀念論叢』(1993), 22.

따라서 「香山三體法」에 사용된 세 종류의 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위에서 선정된 각 활자들을 10종씩 추출하고 비교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보주활자 및 목활자 보자의 비교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보주활자	목활자 보자
1	 1장후면5행 上	 4장후면5행 天	 2장전면4행 人
2	 4장전면6행 時	 5장전면5행 不	 2장전면7행 界
3	 5장후면2행 人	 5장후면8행 思	 6장전면6행 改
4	 5장후면5행 下	 7장전면3행 竹	 6장후면9행 陰
5	 6장전면6행 長	 8장후면7행 夢	 8장전면9행 秋
6	 7장전면4행 士	 11장후면8행 巳	 8장후면9행 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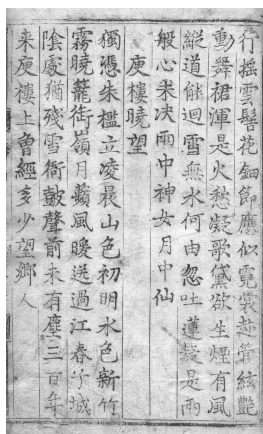
구분	세종 27년(1445)경 초주갑인자	중종 10년(1515)경 보주활자	목활자 보자
7	 9장후면2행 何	 15장전면1행 上	 10장전면5행 春
8	 17장전면3행 故	 17장전면2행 以	 13장후면3행 高
9	 17장전면7행 夫	 21장후면6행 香	 20장전면8행 鼓
10	 22장전면3행 得	 23장전면2행 宅	 24장전면5행 湖

위의 <그림 4>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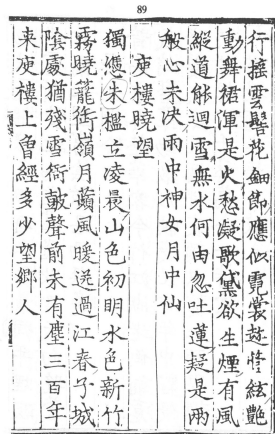
첫째,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주활자에 비해 획이 아주 가늘고 모양이 휘어 있으며, 특히 17장 전면 7행의 ‘夫’는 중심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들 활자로 인해 세종 27년(1445)경에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원본의 발굴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중종 10년(1515)경의 갑인자 보주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종 10년의 보자는 활자의 굵기와 크기가 일정하고 매우 정연하다. 기필되는 부분과 빼침 등이 매우 부드럽고 정연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17장 전면 2행의 ‘以’는 필서자의 필체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인쇄한 자체가 아닌 듯 한 착각을 하게 한다.

셋째, 목활자 보자들은 활자의 굵기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활자 하나하나가 글자본을 뒤집어 붙이고 새겨내기 때문에 동일한 활자라 하더라도 같은 글자 모양이 없고 조금씩 또는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활자가 매우 거칠고 확대하여 보면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활자 보자의 자체는 기존의 활자보다 크고 짜임새가 없다.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명종 20년(1563)의 간행본을 보면 같은 글자의 형태가 그대로 번각되고 있어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20장 전면8행 ‘鼓’의 목활자를 비교하여 보면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鼓’의 모양(그림 5-1 참조)과 명종 20년(1563)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의 ‘鼓’의 모양(그림 5-2 참조)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삼체법」
의 20장전면8행 ‘鼓’ 부분



<그림 5-2> 명종 20년(1563)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향산
삼체법」의 20장전면8행 ‘鼓’ 부분

4.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의 구성 및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평대군은 백거이의 시가 너무 번다하여 185수를 뽑아 선집하였다. 백거이는 中唐 시기(766-835)의 시인으로 두보 시의 영향을 받아 사회시를 주로 지은 시인이지만 백거이 자신은 그의 시를 諷諭, 閑寂, 感傷, 律詩로 분류하였다. 안평대군은 達道한 자들과 함께 읊기 위해 선정하였으며 律詩 중심으로 선집하였다고 하였다.

율시의 정체가 성립된 것은 初唐 시기(618-712)의 沈佺期·宋之問에 이르러 서이며 이때 비로소 7율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5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률이 복잡하고 시의가 확대된 7율은 이보다 조금 늦은 盛唐 시기(713-765)에 이르러 서야 확립되었는데, 두보에 의해 시체가 완성되고 고도의 예술성을 갖추게 된 뒤부터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율시의 특징은 복잡한 대우와 성률의 법칙을 세밀 하게 적용하여 운율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대우법은 3구와 4구, 5구와 6구가 내용상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하며, 다시 3·4구와 5·6구가 대우 를 이루기도 하는 것으로 이런 대우법 역시 두보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 성률은 다시 운과 평측의 조화로 나누어지는데, 5율은 2·4·6·8구의 끝 글자에서, 7율은 1·2·4·6·8구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것이 정격이며 5율의 1구에서 압운 하며 7율의 1구에서 압운하지 않는 변격도 있다. 평측법은 각 구 안에 평성과 측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소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1구 두 번째 글자 의 평측 여하에 따라 평기식(平起式)과 측기식(仄起式)으로 나눈다.¹⁸⁾

『香山삼체법』의 시 구성은 제1首부터 제72首(제1題-제41題)까지는 五言律詩, 제73首부터 제134首(제42題-제103題)까지는 七言律詩, 제135首부터 제185首(제104題-제146題)까지는 七言絶句로 되어 있다. 이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2219a>>. daum 백과사전 브리타 니커. [cited 2010. 4. 20].

4.1 오언율시의 구성과 내용

「향산삼체법」에 실려 있는 오언율시는 72수이다. 이들의 구성 체계에 대해 <표 1>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1> 「향산삼체법」의 五言律詩 제1首-제72首(제1題-제41題)

구분	시의 제목	구분	시의 제목
제1수(1장전면)	對琴待月	제37수(9장전면)	新秋夜雨
제2수(1장전면)	賦得高原草送別	제38수(9장전면)	何處春先到
제3수(1장후면)	春送盧秀才下第遊太原謁嚴尚書	제39수(9장후면)	和春心二十首 1
제4수(1장후면)	送文暢上人東遊	제40수(9장후면)	和春心二十首 2
제5수(1장후면-2장전면)	社日關路作	제41수(9장후면-10장전면)	和春心二十首 3
제6수(2장전면)	旅次景空寺宿幽上人院	제42수(10장전면)	和春心二十首 4
제7수(2장전면-2장후면)	弟夜寄弟妹	제43수((10장전면)	和春心二十首 5
제8수(2장후면)	客中守歲	제44수(10장전면-10장후면)	和春心二十首 6
제9수(2장후면-3장전면)	題施山入野居	제45수(10장후면)	和春心二十首 7
제10수(3장전면)	中書夜直蒙忠州	제46수(10장후면)	和春心二十首 8
제11수(3장전면)	夏夜宿直	제47수(10장후면-11장전면)	和春心二十首 9
제12수(3장후면)	新磨鏡	제48수(11장전면)	和春心二十首 10
제13수(3장후면)	上巳日恩賜曲江宴會卽事	제49수(11장전면)	和春心二十首 11
제14수(3장후면-4장전면)	夜坐	제50수(11장전면-11장후면)	和春心二十首 12
제15수(4장전면)	途中感秋	제51수(11장후면)	和春心二十首 13
제16수(4장전면-4장후면)	遊寶稱寺	제52수(11장후면)	和春心二十首 14
제17수(4장후면)	除夜	제53수(11장후면-12장전면)	和春心二十首 15
제18수(4장후면-5장전면)	西雨雨夜送客	제54수(12장전면)	和春心二十首 16
제19수(5장전면)	松下琴贈客	제55수(12장전면)	和春心二十首 17
제20수(5장전면)	湖亭望水	제56수(12장전면-12장후면)	和春心二十首 18
제21수(5장후면)	吳宮詞	제57수(12장후면)	和春心二十首 19
제22수(5장후면)	偶題閣下廳	제58수(12장후면)	和春心二十首 20
제23수(5장후면-6장전면)	小歲日對酒吟錢湖州所寄詩	제59수(12장후면-13장전면)	何處難忘酒七首 1
제24수(6장전면)	秋晚	제60수(13장전면)	何處難忘酒七首 2
제25수(6장전면-6장후면)	船夜援琴	제61수(13장전면)	何處難忘酒七首 3
제26수(6장후면)	秋齋	제62수(13장전면-13장후면)	何處難忘酒七首 4
제27수(6장후면-7장전면)	履道春居	제63수(13장전면-13장후면)	何處難忘酒七首 5
제28수(7장전면)	北窓閑坐	제64수(13장후면)	何處難忘酒七首 6
제29수(7장전면)	池上	제65수(13장후면-14장전면)	何處難忘酒七首 7

구분	시의 제목	구분	시의 제목
제30수(7장후면)	惜落花	제66수(14장전면)	不如來飲酒酒七首 1
제31수(7장후면)	和杜錄事題紅葉	제67수(14장전면)	不如來飲酒酒七首 2
제32수(7장후면-8장전면)	池上贈韋山人	제68수(14장후면)	不如來飲酒酒七首 3
제33수(8장전면)	西風	제69수(14장후면)	不如來飲酒酒七首 4
제34수(8장전면-8장후면)	雨後秋涼	제70수(14장후면)	不如來飲酒酒七首 5
제35수(8장후면)	自詠	제71수((15장전면)	不如來飲酒酒七首 6
제36수(8장후면-9장전면)	酬夢得暮秋晴夜對月相憶	제72수((15장전면)	不如來飲酒酒七首 7

위의 <표 1>에 의하면, 오언율시는 72수인데 제1수-제38수까지는 단일 제목이고, 제39수-제58수, 제59수-제65수, 제66수-제72수는 연작시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支(제1수), 庚(제2수), 侵(제3수), 東(제4수), 先(제5수), 刪(제6수), 庚(제7수), 眞(제8수), 陽(제9수), 尤(제10수), 庚(제11수), 歌(제12수), 歌(제13수), 庚(제14수), 支(제15수), 眞(제16수), 先(제17수), 尤(제18수), 寒(제19수), 歌(제20수), 歌(제21수), 東(제22수), 支(제23수), 東(제24수), 侵(제25수), 冬(제26수), 侵(제27수), 陽(제28수), 靑(제29수), 侵(제30수), 眞(제31수), 尤(제32수), 微(제33수), 眞(제34수), 東(제35수), 支(제36수), 尤(제37수), 靑(제38수), 麻(제39수-제58수), 眞·庚·先·東·豪·歌·元(제59수-제65수), 鹽·尤·覃·元·文·蒸·豪(제66수-제71수)이다.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庚 5회, 眞 5회, 歌 5회, 尤 5회, 東 5회, 支 4회, 侵 4회, 先 3회 등이다. 5율은 2·4·6·8구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것이 정격이고 5율의 1구에서 압운하는 변격이다. 이러한 변격의 예를 보면, 제14수, 제24수, 제27수, 제32수, 제35수 등이다.

시의 내용은 대부분 백거이의 일상이 담겨 있다. 그의 일상 안에 담겨진 것 중 두드러지는 것은 ‘봄’, ‘가을’, ‘술’이다.

첫째, ‘봄’을 노래한 것은 제16수, 제27수, 제38수, 제39수-제58수이다. 제16수 ‘遊寶稱寺’는 보칭사에서 노닐면서 봄의 경치를 즐기는 것이고, 제27수의 ‘履道春居’는 낙양 이도리(履道里)에서의 봄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제38수 ‘何處春先到’는 어느 곳에 봄이 먼저 오는 가로 제1구를 시작하여 교량 동쪽과 물 북쪽에

있는 정자에 봄이 먼저 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얼어붙은 꽃나무가 아직 피지 않았지만 피끄리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니 봄은 분명 오고 있다고 노래하는 시이다. 봄을 노래한 것 중 ‘和春心二十首’는 연작시이다(제39수-제58수). 백거이는 2·4·6·8구 끝 글자에 麻자 운자인 ‘家·花·車·斜’를 20수에 똑같이 반복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첫 구가 ‘何處春深好’로 시작하여, 제2구 앞부분에서 다시 ‘春深’으로 받는다. 봄이 정말 좋은데 좋은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며 자문하듯, 상대방에게 대화를 건네듯 하면서 다음에 오는 내용들은 주변에 모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즉 富貴家(제39수), 貧賤家(제40수), 執政家(제41수), 方鎮家(제42수), 刺史家(제43수), 學士家(제44수), 女學家(제45수), 御史家(제46수), 遷客家(제47수), 經業家(제48수), 隱士家(제49수), 漁父家(제50수), 潮戶家(제51수), 痛飲家(제52수), 上巳家(제53수), 寒食家(제54수), 博奕家(제55수), 嫁女家(제56수), 娶女家(제57수), 妓女家(제58수) 등이다. 봄은 분명히 따사롭고 좋은 계절이어서 부귀한 집, 가난한 집, 집정관, 절도사, 자사, 학사의 집, 여학가, 어사의 집, 귀양간 이의 집, 경제가, 은사의 집, 어부의 집, 뱃사공의 집, 취객의 집, 삼짗날 계모임하는 집, 한식 맞이하는 집, 장기 두고 바둑 두는 집, 딸 시집보내는 집, 장가 드는 집, 기생의 집에서 일어나는 봄날의 풍광들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즐기는 사람과 고생하는 사람들을 대비시켜 노래한 諷諭詩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을’을 노래한 것은 제1수, 제15수, 제24수, 제26수, 제34수이다. 제1수 ‘對琴待月’은 거문고와 달과 가을을 노래한 것이고, 제15수 ‘途中感秋’는 江州로 좌천되어 가는 길에 가을을 감상하고 지은 시다. 가을철에 백발의 노쇠한 나그네가 고향과 벗을 뒤로 하고 귀양을 가면서 병고(病苦)와 노쇠(老衰)한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제24수 ‘秋晚’은 늦가을의 정취를 노래한 것이고, 제26수 ‘秋齋’는 쓸쓸한 가을 집에서 느끼는 자신의 병든 모습에 대한 심정을 묘사한 것이다. 제34수 ‘雨後秋涼’은 비 온 뒤의 가을날의 정취를 가난하고 병들고 한가한 자신의 모습에 견주어 노래한 것이다.

셋째, ‘술’을 노래한 것은 제59수-제65수의 ‘何處難忘酒七首’와 제66수-제72

수의 ‘不如來飲酒酒七首’이다. 이들 시는 백거이가 東都에 좌천되어 한가하게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고 느낀 것들을 읊은 14편의 시이다(予分秩東都, 居多暇日, 閒來輒飲, 醉後輒吟. 若無詞章, 不成謠詠, 每發一意, 則成一篇. 凡十四篇, 皆主於酒, 聊以自勸. 故以何處難忘酒, 不如來飲酒命篇).

4.2 칠언율시의 구성과 내용

『향산삼체법』에 실려 있는 칠언율시는 제73수-제134수이다. 이들의 구성 체계에 대해 <표 2>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2> 『향산삼체법』의 七言律詩 제73首-제134首(제42題-제103題)

구분	시의 제목	구분	시의 제목
제73수(15장전면-15장후면)	江樓夕望招客	제104수(24장후면)	紫薇花
제74수(15장후면)	杭州春望	제105수(24장후면-25장전면)	偶飲
제75수(16장전면)	酬哥舒大見贈	제106수(25장전면)	正月三日閑行
제76수(16장전면-16장후면)	自河南經亂關內阻飢兄弟離散各在一處因望月有感聊書所懷寄上浮梁大兄於潛七兄烏江十五兄兼示符離及下邳弟妹	제107수(25장전면-25장후면)	病中多雨逢寒食
제77수(16장후면-17장전면)	送王十八歸山寄題仙遊寺	제108수(25장후면-26장전면)	眼病
제78수(17장전면)	庾順之以紫霞綺贈以詩答之	제109수(26장전면)	詠懷
제79수(17장전면-17장후면)	宴周皓大夫光福宅	제110수(26장전면-26장후면)	鸚鵡
제80수(17장후면)	得潮州楊相公繼之書并詩以此寄之	제111수(26장후면)	題天竺寺
제81수(17장후면-18장전면)	白口阻風十日	제112수(26장후면-27장전면)	琴茶
제82수(18장전면-18장후면)	落雪中頻與劉李二賓客宴集因寄汴州李尚書	제113수(27장전면-27장후면)	寄殷恆律
제83수(18장후면)	江樓月	제114수(27장후면)	鏡換盃
제84수(18장후면-19장전면)	認春戲呈馮少尹李郎中陳主簿	제115수(27장후면-28장전면)	不出門
제85수(19장전면)	題王處士郊居	제116수(28장전면)	過元家履信宅
제86수(19장전면-19장후면)	歲晚旅望	제117수(28장전면-28장후면)	題崔常侍濟上別墅

조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구분	시의 제목	구분	시의 제목
제87수(19장후면)	晏座閑吟	제118수(28장후면-29장전면)	予與微之老而無子發於言歎着(著)在詩篇今年冬各有一子戲作二件一以相賀一以自嘲
제88수(19장후면-20장전면)	醉後題李馬李妓	제119수(29장전면)	橋亭卯飲
제89수(20장전면)	庾樓曉望	제120수(29장전면-29장후면)	夜宴惜別
제90수(20장후면)	北樓送客歸上都	제121수(29장후면)	座中戲呈諸少年
제91수(20장후면-21장전면)	百花亭晚望夜歸	제122수(29장후면-30장전면)	戲贈夢得兼呈思黯
제92수(21장전면)	寄李相公崔侍郎錢舍人	제123수(30장전면)	早春憶遊思黯南莊因寄長句
제93수(21장전면-21장후면)	南浦歲暮對酒送五十五歸京	제124수(30장후면)	送蕲春李十九使君赴郡
제94수(21장후면)	石楠樹	제125수(30장후면-31장전면)	寒食日寄楊東川
제95수(21장후면-22장전면)	尋郭道士不遇	제126수(31장전면)	早夏晚興贈蒙得
제96수(22장전면)	風雨晚泊	제127수(31장전면-31장후면)	訓思黯相公晚夏雨後感秋見贈
제97수(22장전면-22장후면)	八月十五日夜湓亭望月	제128수(31장후면)	久雨閑悶對酒偶吟
제98수(22장후면-23장전면)	西省對花憶中州東坡新花樹因寄題東樓	제129수(31장후면-32장전면)	九月八日訓皇甫十兒贈
제99수(23장전면)	蘇相公宅遇自遠禪師有感而贈	제130수(32장전면)	開成太皇太后帝挽歌詞
제100수(23장전면-23장후면)	江亭翫春	제131수(32장전면-32장후면)	感秋詠意
제101수(23장후면)	悲歌	제132수(32장후면)	老病幽獨偶吟所懷
제102수(23장후면-24장전면)	江樓晚眺景物鮮奇吟翫成篇寄水部張員外	제133수(33장전면)	偶吟自慰兼呈夢得
제103수(24장전면-24장후면)	酬微之誇鏡湖	제134수(33장전면-33장후면)	和李中丞與李給事山居雪夜同宿小酌

<표 2>에 의하면, 칠언을시는 62수인데 제73수-제134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陽(제73수), 麻(제74수), 東(제75수), 東(제76수), 灰(제77수), 文(제78수), 先(제79수), 眞(제80수), 眞(제81수), 眞(제82수)支(제83수), 尤(제84수), 刪(제85수), 先(제86수), 東(제87수), 先(제88수), 眞(제89수), 齊(제90수), 灰(제91수), 先(제92수), 刪(제93수), 陽(제94수), 冬(제95수), 東(제96수), 先(제97수), 侵(제98수), 支(제99수), 陽(제100수), 歌(제101수), 陽(제102수), 虞(제103수), 東(제104수), 東(제105수), 蕭(제106수), 先(제107수), 麻(제108수), 寒(제109수), 東(제110수), 文(제111수), 刪(제112수),

文(제113수), 支(제114수), 眞(제115수), 支(제116수), 文(제117수), 支(제118수), 靑(제119수), 尤(제120수), 陽(제121수), 先(제122수), 尤(제123수), 支(제124수), 眞(제125수), 陽(제126수), 支(제127수), 歌(제128수), 陽(제129수), 庚(제130수), 微(제131수), 東(제132수), 眞(제133수), 眞(제134수)이다.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眞 8회, 東 8회, 支 7회, 先 7회, 陽 6회이다. 칠언율시의 경우에는 1·2·4·6·8구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것이 정격이고 제1구에서 압운하지 않는 경우는 변격이다. 이러한 변격의 예를 보면, 제75수, 제77수, 제78수, 제82수, 제84수, 제86수, 제87수, 제88수, 제93수, 제95수, 제96수, 제97수, 제98수, 제106수, 제107수, 제108수, 제109수, 제112수, 제113수, 제114수, 제116수, 제118수, 제119수, 제121수, 제122수, 제123수, 제125수, 제134수 등이다.

시의 내용은 첫째, 백거이가 穆宗 2年(822) 이후 향주자사와 소주자사를 지내면서 그곳의 풍광들을 읊은 시들이 있는데, 제73수, 제83수, 제102수, 제109수, 제111수 등이다. 제73수는 백거이가 향주자사로 부임하면서 강루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을 읊은 것이고, 제83수는 嘉陵江 위의 강루에서 달구경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제102수는 강루에서 저녁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시 한 편을 써서 水部 張員外에게 부치는 내용이다. 제109수는 백거이가 蘇州와 杭州의 풍월을 즐기고 그에 대한 생각을 읊은 명시이다. 제111수는 중국 항주에 있는 사찰인 天竺寺에서 쓴 것이다.

둘째, 백거이가 교유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들이 있는데, 제74수, 제75수, 제77수, 제78수, 제79수, 제80수, 제84수, 제85수, 제92수, 제99수, 제113수, 제122수, 제123수, 제125수, 제127수, 제129수, 제133수, 제134수 등이다. 이 시에 나오는 인물들은 元稹, 哥舒大, 王十八, 庾順之, 周皓大夫 光福, 楊繼之, 馮少尹·李郎中·陳主簿, 王處士, 李相公·崔侍郎·錢舍人, 自遠禪師, 殷俠律, 夢得·思黯, 楊東川, 黃甫十, 李中丞·李給事 등인데, 이들은 백거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인물들로 생각된다. 이중 元稹은 백거이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다. 제74수는 憲宗 4년(809)에 원진이 사천에 있고, 백거이가 장안에 있으면서 嘉陵江 강변의 누각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며 서로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이며,

백거이가 원진의 시 12수에 화답하여 지은 『酬和 元九東川路詩十二首』중의 제5수이다.¹⁹⁾

4.3 칠언절구의 구성과 내용

『향산삼체법』에 실려 있는 칠언절구는 제135수-제185수이다. 이들의 구성 체계에 대해 <표 3>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3> 「향산삼체법」의 七言絶句 제135首-제185首(제104題-제146題)

구분	시의 제목	구분	시의 제목
제135수(33장후면)	秋雨中贈元九	제161수(38장전면)	題王侍御池亭
제136수(33장후면-34장전면)	和友人洛中春感	제162수(38장전면)	浦中夜泊
제137수(34장전면)	華陽觀中八月十五日夜招友翫月	제163수(38장전면)	望江州
제138수(34장전면)	下邳莊南桃花	제164수(38장후면)	夜泊
제139수(34장전면-34장후면)	三月三十日題慈恩寺	제165수(38장후면)	答春
제140수(34장후면)	縣南花下醉中留劉五	제166수(38장후면)	階下蓮
제141수(34장후면)	醉中留別楊六兄弟	제167수(39장전면)	望郡南山
제142수(34장후면)	和王十八薔薇澗花時有懷蘇侍御兼見贈	제168수(39장전면)	竹枝詞
제143수(35장후면)	重到毓材宅有感	제169수(39장전면)	三月三日
제144수(35장후면)	長安正月十五日	제170수(39장후면)	紫薇花
제145수(35장전면-35장후면)	晚秋閑居	제171수(39장후면)	舊房
제146수(35장후면)	途中寒食	제172수(39장후면)	暮江吟
제147수(35장후면)	冬夜示敏巢	제173수(40장전면)	秋房夜
제148수(35장후면-36장전면)	花下自勸酒	제174수(40장전면)	潮
제149수(36장전면)	題李十一東亭	제175수(40장전면)	春風
제150수(36장전면)	杏園花落時招錢員外同醉	제176수(40장후면)	戲答夢得
제151수(36장전면-36장후면)	禁中夜作書與元九	제177수(40장후면)	早春持齋答皇甫十見贈
제152수(36장후면)	夜惜禁中桃花因懷錢員外	제178수 (40장후면-41장전면)	前有別柳枝絶句夢得繼和云春盡絮飛留不得隨風好去落誰家又復戲答

19) 김경동, 『白居易詩選』(서울: 문이재, 2002), 42-43.

구분	시의 제목	구분	시의 제목
제153수(36장후면)	嘉陵夜有懷二首중 1	제179수(41장전면)	五年秋病後獨宿香山寺三絕句 중 1
제154수(36장후면-37장전면)	嘉陵夜有懷二首중 2	제180수(41장전면)	五年秋病後獨宿香山寺三絕句 중 2
제155수(37장전면)	望驛臺	제181수(41장전면)	五年秋病後獨宿香山寺三絕句 중 3
제156수(37장전면)	暮立	제182수(41장후면)	勸夢得酒
제157수(37장전면-37장후면)	寒食夜有懷	제183수(41장후면)	宿府池西亭
제158수(37장후면)	王昭君二首	제184수(41장후면)	傷春詞
제159수(37장후면)	無題	제185수(28장후면-29장전면)	賦得聽邊鴻
제160수(37장후면)	遊城南留元九李二十晚歸		

<표 3>에 의하면, 칠언절구는 51수인데 제135수부터 제185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先(제135수), 眞(제136수), 歌(제137수), 灰(제138수), 元(제139수), 微(제140수), 陽(제141수), 侵(제142수), 眞(제143수), 尤(제144수), 庚(제144수), 陽(제146수), 庚(제147수), 文(제148수), 尤(제149수), 支(제150수), 支(제151수), 東(제152수), 侵(제153수), 東(제154수), 麻(제155수), 先(제156수), 先(제157수), 東(제158수), 支(제159수), 微(제160수), 歌(제161수), 蒸(제162수), 元(제163수), 尤(제164수), 庚(제165수), 東(제166수), 刪(제167수), 齊(제168수), 先(제169수), 陽(제170수), 支(제171수), 東(제172수), 陽(제173수), 灰(제174수), 灰(제175수), 陽(제176수), 眞(제177수), 麻(제178수), 庚(제179수), 灰(제180수), 尤(제181수), 陽(제182수), 靑(제183수), 支(제184수), 文(제185수)이다.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陽 6회, 支 5회, 東 5회, 尤 4회, 先 4회 등이다. 칠언절구의 경우에는 1, 2, 4구 끝자에 운자를 붙이는 것이 정격이고, 제1구 끝자에 붙이지 않은 경우가 변격이다. 정격의 압운을 한 경우는 제143수, 제144수, 제145수, 제150수, 제152수, 제153수, 제156수, 제158수, 제164수, 제165수, 제167수, 제168수, 제171수, 제172수, 제173수, 제174수, 제175수, 제177수, 제178수, 제181수, 제183수, 제184수, 제185수로 51수 중 23수에 불과하다. 변격의 경우가 27수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칠언절구의 내용 중에는 첫째, 백거이가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元稹을 비롯하

여 주변의 인물들과 관련된 시들이 보인다. 그중 제135수, 제137수, 제151수, 제160수는 친구 원진과 관련된 시인데, 제135수는 가을비 속에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이고, 제137수는 백거이가 憲宗 1년(806)에 교서랑 관직을 그만두고 원진과 함께 장안의 화양관에 머물렀는데 그때 지은 시이다. 제151수는 대궐에서 숙직하는 밤에 친구에게 써준 시이고, 제160수는 성남에서 놀고 난 뒤 元九와 李二十을 두고 돌아간 내용을 다룬 것이다. 제150수와 제152수는 錢員外(員外는 관명이고 이름은 錢徽임)와 관련된 시이다. 제150수는 杏園에 핀 살구꽃이 질 때 전원외와 함께 취한 내용을 노래한 것이고, 제152수는 한밤중 궁중의 복사꽃을 아쉬워하며 전원외를 생각한 시이다.

다음은 백거이가 벼슬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所懷를 읊은 것이 있는데, 제138수, 제139수, 제172수 등이다. 제138수는 德宗 25년(804) 백거이는 장안에서 秘書省校書郎의 관직에 있었는데 고향 下邳에 잠시 귀향하였을 때 하규 마을 남쪽의 복사꽃을 보고 惜春之情을 노래한 것이다. 제139수는 順宗 卽位年(805)에 장안의 자은사를 유람하며 사원 벽에 쓴 시이다. 제172수는 穆宗 2년(822) 항주자사로 임명되어 長江의 강변을 거닐면서 지은 시이다.

5.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과 일본 蓬左文庫 소장의 명종 20년(1563) 번각본과의 비교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과 일본 봉자문고 소장의 명종 20년(1563) 번각본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번각본은 원본을 해체하여 판목에 뒤집어 붙이고 투영되는대로 판각한 것이지만 판각상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미묘한 차이 때문에 글자가 다른 것이 있게 되고 심한 경우는 해석상의 변화까지 있게 된다. 따라서 두 판본간의 판각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편의상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을 A본, 일본 봉자문고 소장의 명종

20년(1563) 번각본을 B본으로 약칭하여 <표 4>로 비교하고자 한다.

<표 4>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과
일본 봉자문고 소장의 명종 20년(1563) 번각본의 비교

구분	중종10년 초주갑인자훈입보자본 (A본)	봉좌문고 명종20년 번각본(B본)	비고
1) 1장전면3행	松窓未 _卧 時	松窓未 _卧 時	B본: 획의 탈락
2) 1장후면5행	送文暢 _上 人東遊	送文暢 _上 人東遊	A본: '上'의 획이 가늘고 휘어 있음
3) 3장전면1행	高閑眞是貴	高閑眞是貴	B본: 획의 탈락
4) 5장후면6행	貌將松共 _瘦	貌將松共 _瘦	B본: 瘦를 瘦로 표기 (B본의 _瘦 는 A본 _瘦 의 속자임)
5) 6장전면3행	蹉跎春 _氣 味	蹉跎春 _氣 味	B본은 氣의 시작부분이 '一'로 되어 있음(획을 쓰는 습관의 차이)
6) 6장후면1행	七絃爲益友	七絃爲益友	A본: '七'의 획이 가늘고 휘어 있음
7) 6장후면6행	浩氣在心胸	浩氣在心胸	B본: 획의 탈락
8) 7장전면3행	靜空一爐香	靜室一爐香	A본과 B본: 뜻이 다른 글자 空과 室
9) 7장전면9행	乃置酒初醒	乃值酒初醒	A본과 B본: 뜻이 다른 글자 置와 值
10) 7장후면7행	連行排絳帳	連行排絳帳	B본: 획의 탈락
11) 8장전면2행	僧因飯暫留	僧因飯暫留	B본: 획의 탈락
12) 8장후면2행	貧閑老 _瘦 人	貧閑老 _瘦 人	B본: 瘦를 瘦로 표기 (B본의 _瘦 는 A본 _瘦 의 속자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香山三體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구분	종종10년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A본)	봉좌문고 명종20년 번각본(B본)	비고
13) 8장후면5행	臥疾瘦居士	臥疾瘦居士	B본: 瘦를 瘦로 표기 (B본의 瘦는 A본 瘦의 속자임)
14) 10장전면7행	葉葉集換斜	葉葉隼換斜	A본: '旗'의 부수인 '方'을 '才'로 쓴 경우(획을 쓰는 습관의 차이)
15) 10장후면3행	香牋把下車	香牋把下車	A본과 B본: 뜻이 다른 글자 牋과 牋
16) 11장전면2행	惟求太常第	惟求太常第	B본: 획의 탈락
17) 11장전면6행	蘭索紉幽珮	蘭索紉幽佩	A본과 B본: 珮와 佩는 佩 의 속자이며 佩와 珮는 同字임
18) 11장후면9행	曲落岸邊花	曲洛岸邊花	A본과 B본: 뜻이 다른 글자 落과 洛
19) 15장후면5행	濤聲夜入伍真廟	濤聲夜入伍真廟	B본: 획의 탈락
20) 20장전면6행	獨憑朱檻立凌晨	獨憑朱檻立凌晨	B본: 획의 탈락
21) 23장후면7행	醉來無計但悲歌	醉來無計但悲歌	B본: '但'을 '亘'으로 쓴 경우 (획을 쓰는 습관의 차이)
22) 29장전면7행	甘從妻喚作劉靈	甘從妻喚作劉伶	A본과 B본: 뜻이 다른 글자 靈과 伶
23) 33장후면2행	數杯溫酎雪中春	數杯溫酎雪中春	A본: '酎'의 '寸'을 '十'으로 표기(획을 쓰는 습관 의 차이)
24) 33장후면9행	莫非金谷園中月	莫非金谷園中月	B본: 획의 탈락
25) 35장전면8행	明月春風三五更	明月春風三五夜	A본과 B본: 뜻이 다른 글자 更과 夜

<표 4>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본이 번각본임을 나타내주는 특징의 하나로 글자획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1)의 𪛗와 𪛗, 3)의 𪛗와 𪛗, 7)의 𪛗와 𪛗, 10)의 連과 連, 11)의 因과 因, 16)의 第와 第, 19)의 眞과 眞, 20)의 朱와 朱, 24)의 金과 金 등 아홉 가지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A본의 경우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가 유난히 획이 가늘고 휘어 있는 경우로 2)의 上과 上, 6)의 七과 七의 사례에 해당한다.

셋째, 획을 쓰는 습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가 있는데, 5)는 A본의 氣는 정자인데 비해 B본은 氣로 되어 있어 ‘氣’의 시작부분이 ‘一’로 되어 있다. 14)의 경우는 A본이 𪛗로 되어 있는데 𪛗의 부수인 ‘方’을 ‘扌’로 쓰는 경우이다. 21)은 B본이 ‘但’을 ‘但’으로 쓴 경우이다. 23)은 A본이 ‘耐’의 ‘寸’을 ‘十’으로 표기한 예이다.

넷째, 정자가 아니고 속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례가 보인다. 하나는 4), 12), 13)의 경우인데, B본이 A본에 사용된 瘦를 瘦로 표기하였는데 B본의 瘦는 A본 瘦의 俗字이다. 다른 하나는 17)의 경우, 『향산삼채법』의 제49수로 연작시인 ‘和春深二十首’ 중 11번째 시이며 그 중 제5구이다. A본에는 ‘蘭索紉幽珮’이고, B본에는 ‘蘭索紉幽佩’이다. B본의 佩는 佩의 속자이며 佩와 A본의 珮는 同字이다.

다섯째, 뜻이 다른 글자가 사용된 경우가 보이는데, 8), 9), 15), 18), 22), 25)의 경우이다. 8)의 예는 오언율시 중 제28수인 ‘北窓閑座’의 제2구로 A본은 ‘靜空一爐香’이고, B본은 ‘靜室一爐香’인데, ‘空’이 ‘室’로 바뀌어 있다. ‘고요한 공간에 향로 하나’가 ‘고요한 방에 향로 하나’라는 뜻으로 바뀐 것으로 내용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 9)의 경우는 제29수인 ‘池上’의 제8구로 A본은 ‘乃置酒初醒’이고, B본은 ‘乃值酒初醒’로 바뀌어 있다. A본의 ‘置酒’는 ‘술자리를 벌이거나 주연을 베풀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용어이고 여러 사람의 시에도 나타나고 있어 B본의

‘值酒’보다 더 적합한 용어로 여겨진다. 15)의 경우는 제45수로 연작시인 ‘和春深

二十首’ 중 9번째 시이며 그중 제6구이다. A본에는 ‘香~~戔~~把下車’이고, B본에는 ‘香~~戔~~把下車’이다. ‘향전을 가지고 수레에서 내린다는 뜻’이며 B본의 글자가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18)의 경우는 제53수로 연작시인 ‘和春深二十首’ 중 15번째 시이며 그 중 제4구이다. A본에는 ‘曲落岸邊花’이고, B본에는 ‘曲洛岸邊花’이다. ‘곡락에는 언덕가에 꽃이로다’라는 뜻으로 보아 B본의 ‘曲洛’이 ‘구불구불 흐르는 낙수라는 뜻’이어서 시 전체의 의미에 맞는다. 22)는 제119수인 ‘橋亭卯飲’의 제8구이다. A본에는 ‘甘從妻喚作劉靈’이 B본에는 ‘甘從妻喚作劉伶’이다. 劉伶은 쯤나라 竹林七賢의 한 명이며 술을 좋아했던 인물로 B본의 글자가 정확하다. 25)는 제144수인 ‘長安正月十五日’ 중 제3구이다. A본에는 ‘明月春風三五更’이고, B본에는 ‘明月春風三五夜’이다. 백거이가 장안에서 정월 15일을 보내면서 지은 시인데, A본의 三五更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사이이고, 三五夜는 보름날밤 十五夜를 의미하는 것이니 B본의 뜻이 시 전체의 의미에 맞는다.

6.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香山三體法」의 저자는 白居易(772-846)이고 편자와 간행자는 安平大君(1418-1453) 李瑢이다. 백거이가 지은 작품 수는 대략 3,840편이라고 하며 古體詩, 今體詩, 樂府, 歌行, 賦 등의 시가 및 誌銘, 祭文, 贊, 記 등의 산문작품에 이르는 모든 문학형식을 망라했다. 그의 문집은 元稹에 의해 편찬된 「白氏長慶集」 50권 이외에 後集 20권이 정리되었고, 이어서 武宗 5년(845) 5권의 續後集이 편찬됨으로써 함께 75권의 大集이 완성되었다. 백거이의 시문집 75권 중 현재 71권이 남아 있다. 안평대군 李瑢은 백거이 시 3,000餘首 중에서 150題 185首를 뽑아 선집하여 「香山三體法」이라 하였다. 말미에 세종 27년(1445)에 붙인 안평대군의 발문이 있어 당시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동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정확한 것은

천혜봉 교수가 명종 20년(1565)의 번각본으로 본 것인데 이는 원본이 초주갑인자본에 근거한 것이므로 초주갑인자본이 발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고, 허경진 교수도 발문중의 “出之”를 간행의 뜻으로 보아 원본이 간행본이라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 책의 발굴로 인해 그동안 학자들간에 일본 蓬左文庫 소장본에 실린 세종 27년(1445)에 쓴 안평대군의 발문과 명종 20년(1565)에 쓴 김덕룡의 발문 중에 金德龍의 발문에 더 비중을 두어 책의 최초 간행을 명종 20년(1565)으로 보는 학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2) 『향산삼체법』은 현존하는 판본들이 있지만, 국내외에서 중종 10년(1515)경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으로는 유일한 책이다.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22.0×16.2cm, 有界, 9行15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7.5×18.5cm이며 총 42장 중 38장 전·후면이 결장이다. 표제는 “白律精選”이고, 책의 권수제는 “香山三體法”이며, 끝부분에는 안평대군 이용의 발문이 붙어 있다. 이 책에서 활자를 10종씩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와 중종 10년(1515)경에 인출된 초갑인자 보주활자 및 일부의 목활자 補字가 섞여 있었는데 이들 활자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래 사용해서 획이 아주 가늘고 모양이 휘어 있으며, 중심이 기울어 진 것들이 있는데, 이들 활자로 인해 초주갑인자본의 원본 발굴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놓게 되었다.

둘째, 기존에 주장해왔던 중종 10년(1515)경의 갑인자 보주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이 책은 중종 10년경의 초주갑인자보자는 활자의 굵기와 크기가 일정하고 매우 정연하다. 기필되는 부분과 빠침 등이 매우 부드럽고 정연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목활자 보자들은 활자의 굵기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동일한 활자라 하더라도 같은 글자 모양이 없고 새김이 매우 거칠어서 확대하여 보면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목활자 보자의 자체는 기존의 활자보다 크고 짜임새가 없다.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명종 20년(1563)의 간행본을 보면 같은 글자의 형태가 그대로 번각되고 있어 중종 10년(1515)경 간행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

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향산삼체법」의 시 구성은 제1首부터 제72首(제1題-제41題)까지는 五言律詩, 제73首부터 제134首(제42題-제103題)까지는 七言律詩, 제135首부터 제185首(제104題-제146題)까지는 七言絶句로 되어 있다. 오언율시는 72수인데 제1수-제38수까지는 단일 제목이고, 제39수-제58수, 제59수-제65수, 제66수-제72수는 연작시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庚 5회, 眞 5회, 歌 5회, 尤 5회, 東 5회, 支 4회, 侵 4회, 先 3회 등이다. 시의 내용은 ‘봄’을 노래한 것, ‘가을’을 노래한 것, ‘술’을 노래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칠언율시는 62수인데 제73수-제134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자주 사용된 것은 眞 8회, 東 8회, 支 7회, 先 7회, 陽 6회이다. 시의 내용은 백거이가 穆宗 2년(822) 이후 향주자사와 소주자사를 지내면서 그곳의 풍광들을 읊은 시들과 백거이가 교류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칠언절구는 51수인데 제135수-제185수까지 모두 단일 제목이다. 시의 운자는 모두 平聲의 운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운자 중 자주 사용된 것은 陽 6회, 支 5회, 東 5회, 尤 4회, 先 4회 등이다. 칠언절구의 내용은 백거이가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元稹 및 錢員外와 관련된 시들과 백거이가 벼슬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所懷를 읊은 것이 있다.

4) 중종 10년(1515)경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과 일본 봉좌문고 소장의 명종 20년(1563) 번각본을 비교한 결과 첫째, 명종 20년본이 번각본임을 나타내주는 특징의 하나로 글자획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둘째, 세종 27년(1445)경에 인출된 초주갑인자 활자가 유난히 획이 가늘고 휘어 있는 예들이 있다. 셋째, 획을 쓰는 습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넷째, 속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다섯째, 뜻이 서로 다른 글자가 사용된 경우는 여섯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원본의 내용을 교감하되 일부 글자는 정정하여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순애. 『白氏文集』 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중앙도서관소장 고서해제』 11. 서울: 평민사, 2008. 427-434.
- 김경동 편저. 『白居易詩選』. 서울: 문이재, 2002.
- 白居易 著, 李瑋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 중종 10년(1515)경.
- 白居易 著, 李瑋 編. 『香山三體法』. 초주갑입자혼입보자본각본. 명종 200년(1563).
- 심우준. 『<香山三體法> 研究』. 서울: 一志社, 1997.
- 정진걸. “白居易詩研究.” 『東亞文化』 제44집(2006. 12). 103-120.
- 『中宗實錄』 卷23, 10年 乙亥 11月 乙酉(3日)條. 한국데이터베이스연구소,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千惠鳳. “甲寅字本 鑑識의 諸問題.” 『蒼史李春熙教授定年紀念論叢』(1993). 19-47.
- 허경진.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2008). 95-118.
- 황위주. “韓國本中國試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東亞人文學』 제3집(2003). 317-337.
- 花房英樹. 『白氏文集の批判的研究』. 190-191.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9b0650a>> [cited 2010. 4. 20].
- <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09721&mode=title&query=%BE%C8%C6%F2%B4%EB%B1%BA+%C0%CC%BF%EB> [cited 2010. 4. 20].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2219a>>. daum 백과사전 브리타니카. [cited 2010. 4. 20].